

동학사 대웅전의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과 조각승 각민

정은우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불교미술사 전공
watermon2388@hanmail.net

- I. 머리말
- II.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과 복장물
- III. 발원문과 조각승 각민
- IV. 중요성과 의의
- V. 맺음말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 「동학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상의 연구」, 『동학사 대웅전 삼세불상』((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12), 122-135쪽을 수정 보완하였음.

I. 머리말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에 위치한 동학사는 통일신라 때 개창된 고찰이다. 고려시대 이후 전 왕실과 신하를 기리는 사원이 동학사 주변에 자리하면서 번영과 퇴락의 역사를 함께하였다. 동학사에 대한 문헌기록은 많지 않지만 조선시대에는 ‘東學寺, 東鶴寺, 洞鶴寺, 洞壑寺’ 등의 다양한 사명으로 불렸으며,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17권 공주목에는 계룡산 동학사(東學寺)로 적혀 있다. 『숙종실록(肅宗實錄)』에는 세조가 동학사에 행행(幸行)한 사실을 회고하면서 동학사(東鶴寺)라 표기하였다. 이 외에도 풍계명찰(楓溪明察)의 문집 『풍계집(楓溪集)』에는 ‘洞鶴寺’, 한계현일(寒溪玄一)의 『한계집(寒溪集)』에는 ‘洞壑寺’로 표기되었다.

현재 동학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행도량으로 이름이 높으며 그 수행의 중심처로서 대웅전이 자리하고 있다. 대웅전에는 중앙 불단 높은 곳에 석가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약사불과 아미타불로 이루어진 삼세불상이 봉안되어 있다.¹⁾ 본존불인 석가불의 크기는 110.5cm, 무릎 폭 81.1cm, 아미타불상은 104.2cm, 75.6cm 그리고 약사불상은 102.2cm, 74.6cm이다.

세 불상에서는 조성발원문, 개금중수기를 비롯해 여러 종류의 경전 및 복장물 등 76건이 발견되었다. 발원문의 내용에 따르면, 1605년 음력 10월(孟冬)에 대웅전의 석가불, 약사불, 아미타불과 극락전의 아미타불 등 4구를 조성하기 시작하여 1606년 음력 3월(季春)에 완성하였음이 밝혀졌으며 이를 만든 조각가 각민(覺敏)의 이름도 확인되었다. 4구의 불상 중 석가불, 약사불, 아미타불이 현재 동학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석가여래삼불좌상이다. 발원문의 계룡산(鷄龍山) 청림사(靑林寺)는 동학사 근처의 사찰이며, 1883년과 1957년 등 두 차례의 불상 개금중수가 동학사에서 이루어졌다. 개금 중수기로 보아 불상이 동학사로 옮겨

1) 동학사 대웅전 불상의 정식 명칭은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이며 도상적으로는 삼세불상이라 부른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명칭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동학사에는 대웅전의 삼세불상 외에도 고려시대의 삼층석탑(충청남도 문화재 자료 58호)과 원래의 대웅전이었던 삼성각(충청남도 문화재 자료 57호), 그리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제작된 다수의 불화들이 남아 있다.

온 시기는 1883년경으로 추정된다.

이 동학사 삼세불상은 1m가 넘는 크기에 보존상태도 매우 좋은 편이며, 17세기 초엽 조선 후기 불상의 도상과 양식이 성립하는 중요 시기의 작품인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더불어 각민이라는 새로운 조각승의 작품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점도 흥미를 더하는 요인이다.

이 글에서는 불상의 현상적 특징과 복장물을 살펴보고, 발원문의 내용과 조각가 각민의 불상 특징을 집중적으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동학사 삼세불상의 양식적 연원과 중요성을 고찰하고 보물로서의 가치도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II.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과 복장물

1. 특징

동학사 대웅전에는 가운데 석가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약사불과 아미타불이 있는 구조로 본존인 석가불이 약간 크게 제작되었다(도1). 전체적으로 세 구의 상 모두 넓은 이마에 턱으로 울수록 좁아지는 얼굴형에 반개한 눈, 오뚝한 코 입매 끝이 살짝 들린 입술 등이 조화를 이루어 원만하면서도 위엄 있는 상호를 만들었다. 또한 머리를 앞으로 살짝 숙인 자세에 작은 얼굴과 긴 허리에 무릎 높이가 낮은 신체 비례를 보인다. 불상은 어깨가 넓고 무릎은 낮고 넓으며 수직과 수평의 옷 주름이 서로 어우러져 전체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감 있는 조형미를 이루고 있다.

먼저 석가불은 오른손을 무릎 밑으로 내린 향미촉지인을 하고 있으며,



도1-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조선 1606년

왼손은 앞으로 내민 자세에 엄지와 중지를 구부렸다. 착의법은 오른쪽 어깨를 덮은 변형편단우견식 대의에, 드러난 가슴에는 수평에 사선의 옷 주름이 있는 승각기가 보인다. 대의를 입은 어깨와 가슴 부분에는 사선과 수직의 옷 주름이 흘러내리며, 오른쪽에는 팔꿈치 부분에 맞주름이 표현되어 있다. 왼쪽 팔에서 접힌 옷 주름은 세 줄로 단순하게 정리하였으며 소매에서 흘러내린 옷자락은 발끝을 감으며 안으로 모아졌다. 무릎을 덮은 대의자락도 규칙적인 간격을 이루며 사선으로 표현되었으며, 무릎 사이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옷자락은 구부린 다리의 선을 따라 세 줄의 평행 주름으로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발목 부분에서 사선으로 내려오는 주름도 대칭으로 접어 간결한 느낌을 준다. 석가불은 전체적으로 긴 체구에 무릎에 흘러내린 세 줄의 평행 주름이 양어깨의 세 줄 수직 주름과 비교되어 단정하면서도 균형 잡힌 모습을 보인다. 왼손은 따로 만들어 끼웠는데 자연스러운 손놀림과 힘이 느껴지는 형상에서 작가적 역량이 돋보인다. 약사불과 아미타불은 석가불과 얼굴이라든지 신체 비례, 옷 주름 등에서 거의 동일하며, 수인과 착의법에서만 차이를 보인다. 즉, 아미타불은 오른손을 어깨 부위 정도로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대어 설법인을 하고 왼손은 왼쪽 무릎에 거의 닿을 정도로 둔 상태에 역시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다. 약사불은 왼손을 든 설법인 자세로 아미타불과 반대의 모습이다. 착의법은 석가불의 변형편단우견과 달리 안에 편삼을 입고 그 위에 대의를 걸쳤다. 이에 따라 수인이 달라지면서 변하는 옷자락의 형태라든지 편삼자락이 대의 속으로 들어가면서 생기는 배 주위의 대칭적인 둥근 U형 주름 등에서 석가불과 차이를 보인다.

동학사 삼세불상의 위엄 있는 상호 표현과 작은 얼굴에 긴 상체, 그리고 낮은 무릎 등의 신체 비례적 특징들은 16세기 중엽의 기림사 소조비로자나삼존불상, 1579년 경주 왕룡사원 소조여래좌상, 1614년 전북 익산 송림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등 16세기 말-17세기 초에 조성된 일련의 상들과 양식적으로 상통한다. 즉, 전체적으로 길쭉한 신체에 낮은 무릎과 여기에 새겨진 세 줄의 평행 주름 등이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1614년 익산 송림사 불상과는 이마가 넓고 턱으로 울수록 좁아지는 역삼각형의 얼굴까지도 비슷하여 시기적 특징을 따른 불상 양식이 반영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동학사 대웅전 불상과 같이 주존불인 석가불을 중심으로 그 좌우에

아미타불과 약사불을 배치한 삼세불상 형식은 조선 후기에 가장 유행했던 도상으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 알려진 명문이 있는 삼세불상은 17세기 전반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1605년의 논산 쌍계사 목조삼세불상이 완전하게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예이다. 1466년에 제작된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의 경우 현재 한 구만 남아 있으나 원래는 석가불, 아미타불, 약사불을 제작하였다고 발원문에 쓰여 있어 원래는 삼세불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석가불여래를 주존으로 하는 삼세불은 조선 초기부터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²⁾

이 불상의 제작기법은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엑스레이 촬영 사진을 보면 크고 작은 많은 못을 사용하여 여러 나무를 이어 붙인 접목조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접합 부분은 불상마다 조금 다르게 사용되어 제작기법에 차이가 있다. 아미타불의 경우 머리 부분에 접합못이 아닌 작은 못만이 있어 하나의 통나무를 이용하여 머리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석가불은 좌측 1개, 우측 2개, 중앙계주와 정상계주 사이에 각각 1개, 뒷머리에 머리와 몸체를 연결하는 하나의 못 등 모두 6개의 거멸못(兩腳釘)이 확인되어 머리의 앞면과 양 측면 등 3개의 나무를 이어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약사불의 경우도 석가불과 비슷하지만 총 4개의 못을 사용하여 접합하였다. 이에 따라 아미타불은 목선이 길고 자연스러운 데 비해 석가불과 약사불은 머리를 아래로 숙인 각도의 차이를 보이며 부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제작기법에 따른 조형성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불상 거멸못의 수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몸체와 양 측면, 무릎을 접목하여 ‘ㄷ’자 못으로 고정하였다. 양팔은 따로 만들어 끼웠다. 그리고 불상의 밑판은 불상과 작은 못을 여러 개 사용하여 고정하였다. 종합해보면 불상에 따라 다른 제작기법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는 앞면과 뒷면으로 나뉘었고 두 팔과 앞무릎은 따로 만들어 끼운 상태이며, 두 손과 두 귀도 따로 제작하여 모두 철못을 이용하여 접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나발은 나무가 아닌 다른 물질로 판명되는데, 아마도 흙을 이용하여 만들어 붙였을 것으로 생각된다.³⁾

2) 그러나 중국의 경우 석가불을 주존으로 아미타불과 약사불로 구성된 삼세불의 시원은 원대부터이며 이후 명대까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른 시기의 석가여래삼불상도 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은우, 「경천사지10층석탑과 삼세불회고」, 『미술사연구』 19(2005), 41-53쪽; 이용윤, 「삼세불의 형식과 개념 변화」, 『동아시아미술학』 9호(2008), 91-113쪽.

2. 복장물

동학사 삼세불상은 개금을 하는 과정에서 2010년 8월 다수의 복장물이 공개되었는데, 세 구의 상에서 총 78건 136점의 복장물이 출토되었다. 일반적인 복장 물목을 따르고 있는 점이 특징으로 발원문과 중수개금원문이 각 불상에서 고르게 나왔으며, 후령통과 사경, 각종 경전류와 갓끈, 거울, 황동제 장식편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전은 고려 말부터 조선 전기에 간행된 불서와 17세기 이전에 간행된 불서들이다.⁴⁾ 이 중 약사불에서 출토된 금자묘법연화경 권4 사경은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사서한 것으로 추정되며 뒷면에는 은자의 발원문이 있다. 그 외 1415년 김열경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아미타불에서 출토된 “大功德主 孝寧大君” 목서가 적힌 지장보살본원경권하, 고려시대에 간행된 금강명경 등 고려 말-조선 전기에 제작된 절첩본 경전 등이 있다. 또한 소자본의 묘법연화경, 이색 발문의 불조삼경 등 고려본에서 1405년 권근 발문의 묘법연화경, 1424년 성달생 발문의 육부합경, 1493년 발문이 있는 묘법연화경과 이후 이를 1537년에 복간한 본, 1470년 김수온 발문의 묘법연화경, 이색 발문 천노금강경 등 조선 전기에 간행된 중요 경전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특히 다른 복장물과 비교되는 것은 약사와 아미타불상에서 옥과 수정으로 된 남자의 갓끈으로 추정되는 일부가 잘린 채 출토된 점과 약사불상에서 나온 19cm 정도의 작은 청동제 거울이다. 갓끈의 경우 비슷한 복장물이 전라북도 익산에 위치한 관음사 목조보살입상에서도 나온 바 있다(삽도1). 이 불상은 1605년에 제작된 것으로 원오(元悟)의 작품이다. 원오는 동학사 불상의 증명을 맡은 석준과 함께 상원사 목조문수동좌상의 개금을 맡았던 조각가로서의 인연이 있어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청동제 동경은 ‘整衣冠尊瞻視’라는 다라니가 양각되어 있는데 불화 위에 복장낭과 함께 거는 사례가 선암사 대웅전 불화나 갑사 대웅전 복장낭과 같이 있지만 불상의 복장물로서는 매우 귀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된다(삽도2).⁵⁾

3) 조선시대 불상의 제작기법에 대해서는 정은우, 「용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특징과 원문 분석」, 『미술사연구』 22(2008), 105-108쪽 참조.

4) 송일기, 「동학사 대웅전 삼세불상의 복장전적」, 『동학사 대웅전 삼세불상』, 동학사, 공주시((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12), 136-149쪽.

5) (재)불교문화재연구소편, 『동학사 대웅전 삼세불상』(2012), 83쪽, 91쪽 참조.



동학사 아미타불상, 1606년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입상, 1605년

삽도1-불상 복장물의 갓끈 장식



동학사 약사불상



선암사 패불



갑사 삼세불도

삽도2-불상·불화 복장 출토 동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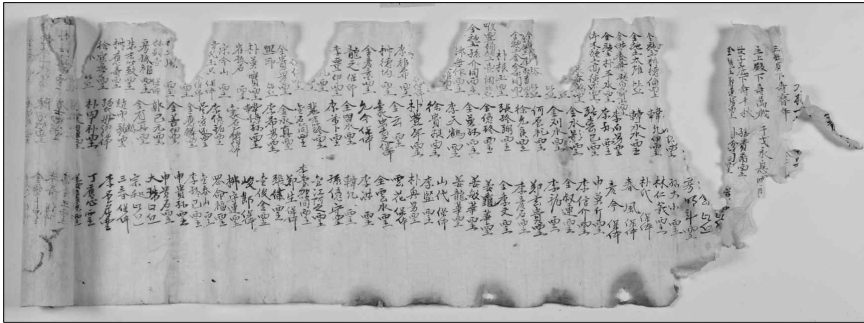
불상의 복장물에서 동경이 나온 사례는 현재 고려시대의 작품인 봉화 청량사 건칠보살좌상에서 나온 예가 가장 이르며, 조선 전기로 추정하는 의성 운암사(불교중앙박물관 기탁품) 불상 안에서도 다수의 동경이 발견된 바 있다. 복장물에 동경을 넣는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 없어 앞으로의 중요한 연구 자료로 생각된다. 이 외에 발원문과 개금중수원문이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III. 발원문과 조각승 각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은 불상 내부에서 출토된 발원문과 개금 중수발원문을 통해 정확한 제작 연대와 상을 만든 조각승을 알게 되었다. 먼저 발원문을 소개하여 조각승을 살펴보고 이어서 불상의 특징도 구체적으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1. 발원문

동학사 불상 세 구에서는 여러 종류의 발원문이 나왔는데, 1605년 불상 제작 시 넣은 발원문과 2건의 개금발원문이다(도2).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2-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복장발원문

1) 불상발원문

維萬曆三十四年丙午二月日忠清道公州鷄龍山「靑林寺大雄殿佛像釋迦藥師彌陀極樂殿彌陀」四尊乙巳孟冬爲始丙午季春畢造初二三點眼永六「安遊內」眞如性無盡故無量壽佛今在西方極樂世界衣食「宮殿隨念郎至受諸快樂十方衆生信心念佛往生極」樂世界七寶池中更生蓮花永脫六道輪回之苦取「連證九品蓮臺之上坐隨身公安同證彌陀度濟迷倫」□等覺岸願同念佛人盡生極樂國見佛了生死與「佛度一切」王妃殿下壽齊年「主上殿下壽晚歲」世子底下壽千秋「干戈永息國民安」[...] 畫圓秩「證明 釋俊比丘」上畫圓 覺敏比丘「覺心比丘」幸思比丘「休一比丘」德岑比丘「持殿天暉比丘」

2) 개금중수발원문

忠清右道公州鷄龍山東鶴寺大雄殿三尊佛像東方藥師如來改金重修奉安願文「光緒九年癸未五月二十一日遺教弟子時會大衆老少比丘大小檀越助緣良工等共發處誠嚴」淨道改金重修謹恭奉安伏願奉安之後 國祚如盤石永固千年寺運若長江流注「無窮兼此大小結緣隨喜同參者生」世「在」處「常逢 諸佛恒修善業速成佛果」廣度一切同登解脫共入涅槃「證明比丘常經」會主比丘應聰「證明比丘瑞印」性罕「持殿比丘奉仁」金魚比丘善律「若效」尙悅「印文」法融「似訥」.....

3) 개금불사원문

改金佛事」證明李曉峰大和尚」青潭大和尚」金瑞雲大和尚」會主金鏡峰大和尚」禪德慧然」立繩昭靈」持殿秀賢」誦呪道佑」□頭慈修正信」良工南春□」李東熙」 [...] 佛紀二九八四年丁酉閏八月十五日」

1)은 석가불과 아미타불에서 발견된 불상 조성 당시의 발원문으로, 이에 의거하여 충청남도 공주 계룡산의 청림사 대웅전에 모셔졌던 불상임이 밝혀졌다. 청림사는 충청남도 공주군 탄천면 가척리에 위치한 사찰로서 현재는 폐사되었다.⁶⁾ 존상의 제작 시기는 1605년으로 음력 10월 대웅전의 석가불, 약사불, 아미타불과 극락전의 아미타불 등 4구를 조성하기 시작하여 1606년 음력 3월에 완성하였다고 하였다. 2)의 개금중수발원문에 기재된 ‘光緒九年癸未五月二十一日’과 ‘金魚比丘 善律」若效」尙悅」印文」法融’을 통해 동학사 대웅전에서 삼세불상의 개금중수가 이루어졌음과 그 시기가 1883년(光緒九年)임도 확인된다. 더불어 원래 4구의 불상 중 미타전의 불상은 현재 동학사에 남아 있지 않아 삼세불상만 동학사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원문 3)은 1957년에 이루어진 마지막 개금불사에 대한 내용이다.

1)과 2)의 내용 중 상을 만든 조각승과 개금을 담당한 장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삼세불 조성에는 증명(證明) 석준(釋俊), 불상을 만든 책임자는 상화원(上畵圓) 각민(覺敏)이며, 각심(覺心), 행사(幸思), 휴일(休一), 덕잠(德岑)이 함께했음을 알 수 있다. 증명을 맡은 석준은 원오와 함께 1599년에 강원도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을 개금한 인물로 유명하다. 그리고 1600년에 시작하여 1635년에 끝난 전라북도 김제 금산사의 중창 세력으로 참가하였다.⁷⁾ 원오는 몇 구의 작품을 남긴 반면 석준의 작품과 행적은 현재까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동학사 불상의 발원문을 통해 그의 행적을 찾을 수 있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석준은 이외에도 미공개된 불교미술박물관소장의 발원문에 수화승 원오와 함께 이름이 쓰여 있다고 하여 계속 함께 작업한 장인으로 이해된다.⁸⁾ 각민의

6) “靑林寺 在忠淸南道公州郡 梵宇攷.州南五十里灘川面加尺里山谷 距今百年前毀撤…….” 권상로, 『韓國寺刹全書』 하(이화문화사, 1994. 3).

7) 최선일, 「조선 후기 조각승과 불상 연구」, 『미술사학연구』 261(2009a), 19-20쪽.

8) 최선일, 『조선후기승장 인명사전 -불교조소-』(양사재, 2007), 1쪽.

앞에 적힌 상화원은 1515년의 경상북도 예천 용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발원문에도 ‘上畵圓 李永文’으로 등장하는데, 장인 가운데 주도적으로 참여한 우두머리를 통칭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조선 전기부터 사용되었던 명칭임이 확인된다.⁹⁾ 이 호칭은 1612년의 함양 상련대 원통보전에 있는 목조관음보살좌상에도 ‘上圓 玄眞’으로 등장하는 등 변형을 보이면서 계속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83년에 행해진 첫 번째 개금중수에 대한 원문은 아미타불과 약사불에서 나왔는데, 작업은 금어비구(金魚比丘) 선율(善律)과 약효(若效), 효상(尙悅), 인문(印文), 법융(法融) 등이 참여하였다. 금어 가운데 선진은 알 수 없으며, 약효는 잘 알려진 대로 충청도에서 활약한 대표적인 화승으로 1883년 이후부터 수화승으로 활발하게 작업하였다. 즉, 동학사 불상의 개금중수로 활동한 1883년은 수화승으로 활동을 시작한 해로서 공주 갑사에서 대비암 독성도를 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두 번째 개금불사에 대한 내용은 아미타불에서 발견되었으며, 1957년 효봉 스님을 증명으로 동학사에 계셨던 스님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당시 중수에 참여한 이들은 양공남춘(良工南春) 이동희(李東熙)로서 승려가 아닌 일반인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어 승려들에 의해 구성된 조선시대와는 다른 계보로서의 시기적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증명, 송주, 반두 등 조선시대의 불상 제작과정을 그대로 따른 전통적인 의례가 현대까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동학사 불상은 1606년 청림사에서 처음 제작되었으며 1883년 동학사에서 개금중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청림사에서 어느 때인가 동학사로 옮겨졌음도 알 수 있으며, 그 시기는 청림사의 폐사와 연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조각승 각민과 불상의 특징

동학사 대웅전의 석가불은 상화원 각민을 대표로 각심, 행사, 휴일, 덕잠 등에 의해 제작되었다. 상화원 각민은 1606년 동학사 삼세불상을

9) 정은우, 「용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특징과 원문 분석」, 『미술사연구』 22(2008), 97-101쪽.

표1-각민의 불상 작품 목록

	작품	연대	조각승	원 소장처	현 소장처
1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06년	覺敏, 覺心, 幸思, 休一, 德岑	공주 청림사	동학사
2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7세기 초	願悟, 覺敏, 德奇, 淸虛	미상	한국불교미술 박물관
3	목조비로자나불삼존상	1614년	覺敏, 幸思, 淸虛, 寶玉, 熙淳, 心淨, 應梅	순천 송광사	현재 소실

조성하고 비슷한 시기 원오(願悟), 덕기(德奇), 청허(淸虛)와 함께 목조아미타불상(불교미술박물관 소장)을¹⁰⁾, 그리고 1614년에는 각민의 주도하에 행사, 청허, 보옥(寶玉), 희순(熙淳), 심정(心淨), 응매(應梅)와 함께 순천 송광사 대웅전에 모셔졌던 목조비로자나불삼존상(한국전쟁 중 소실)을 제작하였다(표1).¹¹⁾

이 가운데 불교미술박물관 소장의 불상은 공개되지 않은 작품이다.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송광사 목조비로자나불삼존상은 현재 측면향의 오래된 흑백사진 한 장만 남아 작품의 특징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동학사 불상과 더불어 각민과 행사가 함께한 작품이며 각민이 수화승으로 나와 있는 점도 같다. 이 목조비로자나불삼존상과 동학사 불상을 비교해서 각민 불상의 특징과 시대적 차이점을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얼굴형이라든가 전체적인 비례 그리고 낮은 무릎과 수직과 수평으로 이루어진 옷 주름은 사진상 매우 뚜렷하여 각민 불상의 특징은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유일하게 각민이 제작한 보살상도 확인되는데, 짧은 신체 비례와 구불거리는 긴 보발의 모습 등이 이색적이다. 그리고 두 보살상이 대칭으로 손에 들고 있는 부드럽게 휘 연꽃 가지가 원래의 것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등장하는 지물이자 형태인 점에서 주목된다.¹²⁾ 이는 송광사 응진전에 있는 1624년 제작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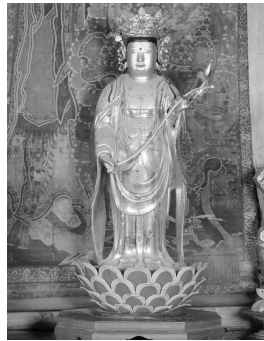
10) 문명대, 「석준, 원오파의 성립과 논산 쌍계사 삼세불상(1605년) 및 복장의 연구」, 『강좌미술사』 36(2011), 593-594쪽, 표3 참조. 이 불상은 1596년 이후에 제작된 상으로 논문에 언급되어 있을 뿐 사진조차 소개되지 않은 작품이다. 필자도 직접 조사하지 않아 확실하게 알 수 없어 논문의 내용만 그대로 인용하였다. 현재 불교미술박물관 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박물관에서 출간된 도록에도 자세히 명기되어 있지 않다. 다만 비슷한 작품은 불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도판으로 소개되어 있을 뿐인데, 확실하지 않은 점에서 이 글에서는 제외하였다. 한국불교미술박물관편, 『衆生の 念願』(2004), 도21 참조.

11) 이 사진은 『朝鮮古蹟圖譜』 卷13(조선총독부, 1933), 도5637에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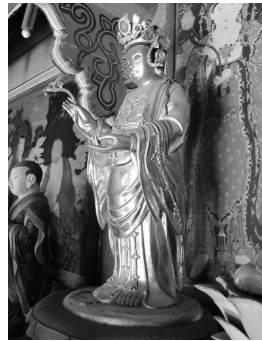
12) 원오의 작품인 1605년 익산 관음사와 해봉원 보살입상도 지물을 들고 있는데 이는 후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송광사 대웅전 목조보살입상
(한국전쟁 중 소실), 1614년
(각민)



송광사 응진전 목조제화갈라
보살입상, 1624년(응원)



홍국사 대웅전 목조미륵보살
입상, 1628-1644년(인균
추정)

삼도3-17세기 초엽 연꽃 가지를 든 보살입상

응원의 작품인 목조제화갈라보살입상에서도 보이는 특징이며, 그 제자 격인 인균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여수 홍국사 대웅전의 목조미륵보살입상에도 나타난다(삼도3).¹³⁾ 즉, 각민에 의해 성립된 지물과 그 형식이 이후 계승되면서 조선 후기의 특징으로 형성되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상 현존하는 각민의 작품을 중심으로 시기를 정리해보면, 각민은 최소한 1606년부터 1614년까지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조각승이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각민의 작품은 3점이 알려져 있지만 남아 있는 작품은 1606년 동학사 삼세불상이 유일한 사례로서 이를 통해 각민 불상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¹⁴⁾

동학사 불상은 위엄 있는 상호 표현과 작은 얼굴에 긴 상체, 그리고 넓은 어깨와 낮은 무릎 등의 신체 비례가 특징이다. 목이 길어 전체적으로 안정감과 균형이 잘 맞으며, 귀족적이면서도 수려한 얼굴 표정, 가슴과 배 부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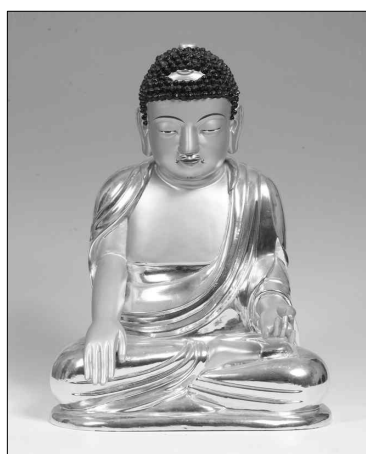
도3-익산 승림사 목조석가여래좌상,
1614년

13) 손영문, 「조각승 인균과 불상조각의 연구」, 『강좌미술사』 26(2006), 64-65쪽 참조.

14) 각민의 작품 중 개인소장과 한국불교미술박물관 소장의 불상이 같은 상인지 알 수 없다. 개인소장의 발원문은 송은석, 「17세기 朝鮮王朝의 彫刻僧과 佛像」,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7), 375-376쪽; 한국불교미술박물관 소장의 불상에 대해서는 문명대, 앞의 논문, 593-594쪽 참조.



도4-논산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상중 약사불상, 1605년, 원오



도5-김해 선지사 목조여래좌상, 1605년, 원오

살이 없어 옆에서 보면 마른 체형을 보이는 점도 주목된다. 이러한 전체적인 비례감은 16세기 후반경부터 나타나는 특징으로 기림사 소조비로자나삼존불상, 1579년 경주 왕룡사원 소조불상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외에도 귀신사라든지 1614년 전북 익산 승림사 목조석가여래좌상(도3) 등 16세기 말-17세기 초에 조성된 일련의 상들과도 비례나 양식적인 면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각민의 불상은 같은 시기에 활동한 원오의 작품과 비교된다. 원오는 동학사 불상의 증명을 맡은 석준과 1599년 상원사 불상의 화사로 참여한 인연이 있는 조각승이다. 원오의 작품으로는 1605년 논산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상(도4)이라든지 김해 선지사 불상(도5) 그리고 익산 관음사와 해봉원의 문수보살입상과 보현보살입상, 1605년의 원주 위봉사 북암의 지장보살상과 보살입상(현재 도난) 등이 알려져 있으며, 이 외에도 1624년 합천 해인사의 경판고(經板庫) 법보전(法寶殿) 중영의 시주자로, 1635년 불갑사 대웅전 불상에서는 공양주로 참가하고 있어 조각승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¹⁵⁾

원오의 작품은 길쭉한 상반신이라든지 낮은 무릎 등에서 유사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비례감은 17세기 초엽에 유행했던 시기적 특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거의 같은 시기에 제작된 각민의 동학사 불상과 원오의 쌍계사 불상을 비교해보면 비례와 얼굴의 조형성에서는 확연한 차별성을

15) 최선일, 「17세기 전반 조각승 원오의 활동과 불상 연구」, 『17세기 彫刻僧과 佛像 研究』 (한국연구원, 2009b), 1-26쪽.



삽도4-각민과 원오의 불상 상호

보여 개인적 차이도 매우 뚜렷함을 알 수 있다(삽도4). 쌍계사 불상은 정면 응시의 곧은 자세와 턱으로 올수록 살이 많아 불룩하고 눈두덩은 부은 듯 두꺼운 눈썹과 눈 사이에 각을 주어 명료하며, 가슴은 밋밋하고 그 밑으로 살이 찢 배의 모습을 사선으로 앞으로 내밀게 표현하였다. 또한 목이 매우 짧고 어깨가 앞으로 숙여져 전체적으로 움츠린 모습이다. 이는 동학사 불상과 다른 점으로 각민의 불상이 이마에 비해 턱이 좁아 전체적으로 역삼각형의 얼굴형을 보이는 점과 눈썹과 눈 사이를 선이나 각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처리하고 눈두덩을 가볍게 처리한 점, 그리고 목이 길고 어깨와 무릎을 넓게 처리한 점에서 원오의 쌍계사 불상과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표현의 차별성은 불상의 전체적인 인상은 물론 미감과 조형성에서 다르게 보이며 조각승의 독자적인 작가적 기량이자 특징으로 간주된다. 즉, 각민의 불상이 좀 더 균형감이 뛰어나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세련된 조형성을 보인다.

표2-각민과 함께 작업한 조각승과 작품

	조각승	작품	연대	현 소장처	원 소장처
1	願悟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05	논산 쌍계사	
		목조여래좌상	1605	김해 선지사	
		목조보살입상	1605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입상	1605	익산 혜봉원	
		목조여래좌상	17세기 초	한국불교미술박물관	미상
2	幸思	목조석가불상과 보살상	1648	해남 도장사	
3	休一	목조아미타삼존불상	1651	전남 고흥 금탑사	
4	淸虛	목조아미타여래상	1640	거창 심우사	덕유산 연수사
5	應梅	목조석가여래삼존상	1650	군산 동국사	금산사 대장전



도6-거창 심우사 목조아미타
여래좌상, 1640년, 청허



도7-군산 동국사 목조석가여래
좌상(본존), 1650년, 응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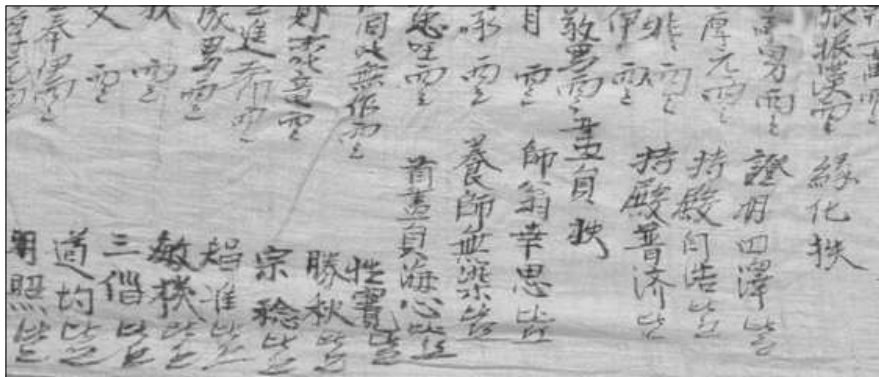
도8-고흥 금암사 목조아미타
여래좌상(본존), 1651년,
휴일



도9-1-해남 도장사 목조석가불좌상과
보살좌상, 1648년, 행사

각민의 불상 제작에 함께 활동한 조각승은 각심(覺心), 행사(幸思), 휴일(休一), 덕잠(德岑), 원오(願悟), 덕기(德奇), 청허(淸虛), 보옥(寶玉), 희순(熙淳), 심정(心淨), 응매(應梅)로서 모두 11명이다(표2).

그러나 이들 가운데 현재 작품이 남아 있는 조각승은 행사, 청허, 응매, 휴일 정도이다. 청허는 1640년 현재 거창 심우사에 있는 덕유산 연수사 목조아미타불상을 제작하였다(도6). 현재로서는 각민의 마지막 작품인 송광사 비로자나불삼존상 제작에 마지막 조각승으로 명시된 응매는 동국사 석가여래를 제작하였다(도7). 이 상은 1650년에 제작된 것으로 석가불좌상과 입상의 가섭, 아난존자로 이루어진 삼존상인데,



도9-2-해남 도장사 목조석가불좌상 및 보살좌상 원문

원래는 금산사 대장전에 봉안되었던 것을 현재의 사찰로 이운한 작품이다.

휴일은 1651년 전라남도 고흥 금암사 목조아미타삼존불상을 제작하였다(도8). 그리고 행사는 1648년 해남 도장사 목조석가불좌상과 보살좌상을 조성하였는데(도9-1), 사옹(師翁) 행사, 양사(養師) 무염(無染), 수화(首畵) 해심(海心) 등으로 적혀 있어 '사옹'의 의미를 해석하기 어려운데 직접 제작했다기보다는 조각 제작 단계의 웃어른으로서 참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도9-1, 도9-2).¹⁶⁾ 사실 1614년 송광사 비로자나불삼존상에는 각민 다음에 행사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1648년 도장사 불상은 이보다 34년 뒤의 작품인 점을 고려해보면 연령 면에서 실제 제작에 참여했다기보다는 총괄의 상징적 의미로 해석된다.

이상에서 열거한 각민과 함께 작업에 참여한 조각승들의 작품들은 거의 1640-1650년대의 것으로 17세기 초에 활동한 각민의 불상 특징이 다른 조각승들에게 끼친 영향을 논하기 어려운 시기적 격차를 보인다. 다만 청허의 경우 거창 심우사 불상의 옷 주름에서 무릎에 흘러내린 세 줄의 횡선 주름 정도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정도이다. 이들의 공통점이라면 거의 모두 전라도 지역에 있는 작품으로, 각민이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점과 관련성이 있을지는 앞으로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16) 문명대, 「조각승 무염, 도우와 불상조각의 연구」, 『강좌미술사』 26(2006), 23-51쪽.



도10-고창 선운사 참당암 삼존불 중
목조 아미타불좌상, 1561년



도11-안동 서악사 건칠아미타
불상, 1567년

IV. 중요성과 의의

이상에서 동학사 불상을 중심으로 조각승 각민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불상은 각민이 수화승으로서 유일하게 남긴 작품인 점과 그 예가 드문 17세기 초반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동학사 불상의 특징을 정리하면서 그 양식적 시원을 살펴보고, 17세기에 활동한 다른 조각승들과의 작품 비교를 통해 그 의의와 문제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조각승 각민이 주도하여 만든 동학사 삼세불상은 앞으로 숙인 자세에 상체가 긴 비례감과 넓은 무릎이 주는 균형감에서 조화가 돋보이며 측면에서 느껴지는 마른 체구와 세 줄로 정리된 간결한 옷 주름 등에서 군더더기 없는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이마가 넓고 턱으로 올수록 좁아지는 얼굴형과 가늘고 긴 눈매에 약간 치켜 올려진 눈꼬리, 작은 입술은 근접할 수 없는 위엄이 느껴진다. 또한 각민은 장식성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세 줄로 정리된 주름으로 옷 주름을 단순화시킴으로써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였다. 어깨에서 흘러내린 수직 주름과 무릎에 흘러내린 평행의 세 줄 주름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안정감을 주는 요소이다. 특히 무릎에 흘러내린 세 줄의 평행 주름은 균일하고 촘촘하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특징 가운데 이마가 넓으면서 턱으로 올수록 좁아지는 얼굴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 좌상, 1458년	예천 용문사 목조아미타여래좌 상, 1515년	문경 봉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 상, 1586년	논산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좌상, 1605년	공주 동학사 석가여래좌상, 1606년
--------------------------------	--------------------------------	--------------------------------	------------------------------	----------------------------

삼도5-15-17세기 불상 비교

형태, 옆으로 긴 눈이라든지 선각으로 단순하게 처리된 무릎의 평행 주름은 1515년 경상북도 예천 용문사 목조아미타여래불상에서부터 나타나는 16세기 불상의 특징이다.¹⁷⁾ 또한 부드러운 얼굴과 힘이 있으면서도 가슴과 배 부분에 살이 없어 옆에서 보면 마른 체형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특징인데, 이는 기림사 소조비로자나삼존불상, 1579년 경주 왕룡사 원 소조불상에서도 보이는 16세기적 특징의 연장이다. 수인의 위치도 주목된다. 아미타불의 경우 오른손은 어깨 높이로 들고 왼손은 무릎에 거의 닿은 자세인데, 이는 15세기 불상의 무릎과 공간을 둔 왼손 처리와는 다른 모습으로 16세기 불상과 비교되는 요소이다. 즉, 16세기 불상들인 1561년 참당암 목조 아미타여래좌상이라든지(도10) 1567년 서악사 건칠 아미타불상의 수인을 보면(도11) 왼손이 거의 무릎에 닿아 있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는 것이다(삼도5).¹⁸⁾

각민 불상의 시원인 16세기 불상들은 1458년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나 1482년 천주사 목조불상에 보이는 타원형의 작은 얼굴에 좁은 어깨, 넓은 무릎 그리고 단순하면서도 신체의 선을 따라 흘러내린 자연스러운 옷 주름이 특징인 15세기의 불상과는 다른 변화를 보이는 시기이다. 더불어 시기적 양식의 획일화보다는 여러 도상과 양식이 혼재되면서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는 과도기적 특징을 보인다(삼도5). 예를 들어, 1501년의 기림사 불상과 같이 이국적인 사례가 있는 반면 1515년 용문사

17) 용문사 불상에 대해서는 정은우, 앞의 논문(2008), 93-116쪽 참조.

18) 16세기 불상에 대해서는 김광희, 「16세기菩薩像 연구」, 『文物研究』 14(2008), 103-136쪽; 어준일, 「16世紀 朝鮮時代의 佛教彫刻 研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1) 등 참조.



안성 청룡사 석가여래좌상, 1603, 광원
 논산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좌상, 1605, 원오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좌상, 1606, 각민

삼도6-17세기 초 불상의 대표 조각승과 작품

불상과 같이 15세기적 경향이 강한 불상, 1561년 참담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579년 경주 왕룡사원 불상과 같이 짧은 목에 투박한 얼굴 모습을 보이는 사례도 있다. 또는 안동 광흥사 불상에 보이는 위로 뽀족한 육계에 크고 턱에 살이 많은 얼굴, 신체의 비례가 짧으면서 살이 많은 불신 등 새로운 유형도 보인다.¹⁹⁾ 이러한 16세기 불상의 특징들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사찰의 중건과 불상 조성이 활발해지면서 조선 후기의 신앙이나 사상적 특징 그리고 미의식과 결합되면서 17세기 초에 활동한 조각승들에 의해 정형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도상과 양식들은 큰 변화 없이 19세기까지 이어지면서 조선 후기적 특징으로 정립된다고 할 수 있다.

현존 작품으로 보면 조선 후기 불상이 정형화되는 17세기 초엽에 활동한 장인은 원오, 각민 그리고 1603년 안성 청룡사 석가여래좌상을 남긴 광원 등 1603-1610년대에 활동했던 조각승들이 주축이 되었다(삼도 6). 원오와 각민은 석가불을 주존으로 아미타불과 약사불을 협시로 하는 삼세불상을 제작하였고, 높은 불단에 1m 이상 되는 큰 크기에 위엄 있는 상호 표현과 작은 얼굴에 긴 상체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넓은 어깨와 낮은 무릎 등의 신체 비례를 두어 기도하는 신도의 입장에서 보면 얼굴이 강조되면서 직접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었다. 또한 석가불은 변형편단우견의 대의를, 아미타불과 약사불은 편삼을 대의 안에 입는 착의법 그리고 수인 등에서 하나의 정형을 만든 시기이다. 이는 16세기 중엽경에 제작된 기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상(도12)과 같이

19) 어준일, 위의 논문, 56쪽, 도14 참조.



도12-경주 기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상, 16세기

고려 말에서부터 조선 전기에 삼세불상의 선행 도상으로 유행하였던 비로자나불, 아미타불, 약사불이 모두 같은 대의를 착의한 점과 대조된다. 그리고 1428년 명 북경 대각사 금동삼세불상이나 북경수도박물관 소장의 1450년 명 천녕사 금동삼세불상과 같이 중국 명대의 경우 역시 삼세불이 모두 같은 대의를 입고 있는 것과도 비교되는 점에서 한국화된 특징이라 할 수 있다.²⁰⁾

즉, 석가여래를 본존으로 하는 삼세불상은 조선 전기부터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형화된 도상의 성립과 유행은 17세기 초반부터이며, 이후 조선 후기 300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양식 또한 1614년 전북 익산 송림사 목조삼세불상(도3) 등 16세기 말-17세기 초에 조성된 일련의 상들과 양식적으로 상통하면서 얼굴이나 옷 주름 등에서 작가마다의 차별화된 특징을 보이며 계속 발전하게 된다.²¹⁾

그런데 같은 시기에 활동하였고 함께 작업한 작품도 남아 있는 각민과 원오가 제작한 불상은 도상적인 유사성을 제외하면 양식적인 동질성이 크게 보이지 않는 점도 주목되며, 이는 같은 시기에 활동한 다른 조각승과도 같은 경향을 보인다(삽도6). 즉, 각민의 불상은 그보다 선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원오와 함께 만든 17세기 초반의 불상이 있다고 하지만 발원문만 공개된 상태일 뿐 불상의 유사성을 논하기 어렵다. 그리고 각민과 함께 작업한 청허나 응매의 경우 시기적 차이가 많은 불상만 남아 있어

20) 정은우, 「조선 후반기 조각의 대외교섭」, 『조선 후반기 미술의 대외교섭』(예경, 2007), 184-190쪽.

21) 17세기 이후에 해당하는 조선 후기 불상에 대한 연구는 매우 많으나 전체적으로 개관한 자료로는 김리나·정은우 외, 『한국불교미술사』(미진사, 2011), 100-129쪽; 최선일, 앞의 논문(2009a), 41-67쪽; 송은석, 「17세기 朝鮮王朝의 彫刻僧과 佛像」,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7); 이희정, 「朝鮮後期 慶尙道地域 彫刻僧과 佛像」,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0) 등이 참고된다.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의 영향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 이는 1610-1620년대에 활동한 현진, 수연, 청허 등과도 마찬가지로 수연이나 현진의 작품과도 얼굴이나 옷 주름 등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이들 중 1610년대에 각민과 함께 활동한 조각승은 청허로서, 1605-1610년경에 조성한 목조불상(한국불교미술박물관 소장)의 발원문과²²⁾ 현재는 소실되었지만 사적기를 통해 확인된 1614년 순천 송광사 목조비로자나불삼존상의 조각승 명단에 각민, 행사와 더불어 세 번째에 이름이 적혀 있다. 청허는 원오와도 1605년 전라북도 익산 관음사와 혜봉원 불상을 함께 작업하였고, 1622년에 제작해 현재는 한 구만 남아 있는 서울 지장암 불상의 조성에도 현진과 함께 참여한 조각승이다. 이로 보면 청허는 원오, 각민, 현진 등 17세기 초반경에 활동한 모든 조각승과 작업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청허의 작품은 거창 심우사 목조아미타불상(도6)이 대표적인데 역시 각민의 불상과는 다르며, 원오나 현진의 불상 양식과도 차별성을 보인다.

따라서 동학사 불상이 제작된 17세기 초반에 활약한 원오나 각민, 현진, 광원 등 이 시기에 활동한 조각승들의 불상은 도상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양식적 측면에서는 각각의 개성이 매우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삽도6). 함께 작업한 각민과 원오 역시 스승 격인 석준과 서로 연결되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일 수 있지만 양식 면에서는 차별화된 면을 보여 그 관계를 속단하기 어려우며, 사승관계라든지 유파적 개념으로 묶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앞으로 조각승들과의 관계성을 ‘사승(師承)’이나 ‘파(派)’ 또는 ‘유파(流派)’라는 명칭이나 개념으로 묶을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17세기 초반의 불상 연구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 생각된다. 이는 조각승들의 활동, 지역성, 도상이나 기법, 재료, 양식적 유사성 등 다양한 문제와 연계하여 연구할 과제이다. 현재로서는 각민과 그의 작품만으로는 사승관계나 유파의 개념으로 묶을 수 있는 관련성을 찾는 작업은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2) 주 10) 참조.

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은 임진왜란 직후인 1606년에 조성된 상으로, 조선 후기 불상 가운데 제작 연대가 매우 이른 작품일 뿐만 아니라 조형적으로도 매우 우수하다. 조선 후반기에 해당하는 17세기의 불상은 그 수가 많은 편이지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끝난 직후에 제작된 17세기 초에 제작된 불상 사례는 많지 않은 편으로 자료적 가치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삼세불상의 조성은 물론 충실한 중수기록이 발원문에 명기되어 있으며, 불상을 조성한 각민, 행사 등 상을 만든 조각승과 활동 시기를 밝힐 수 있는 점도 중요하다. 불상과 더불어 복장물로 출토된 사경과 경전은 서지학적으로 조선 전기의 불서 간행 상황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불상이 제작된 공주 청림사는 공덕주가 효령대군이라 적힌 지장보살본원경이 나왔듯이 왕실과 관련된 사찰로 추정된다. 이는 세조의 동학사행행기록에서 보듯 동학사가 조선 전기 왕실과 관련된 사찰로 알려져 있어 앞으로 공주 지역과 조선 전기 왕실의 후원 문제를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은 전체적인 비례라든지 세부적인 옷 주름, 수인, 얼굴 표정 등에서 17세기 전반경에 유행했던 불상의 특징을 보인다. 특히 허리가 긴 신체 비례라든지 수직과 수평으로 획일화된 옷 주름의 표현기법은 17세기 전반경의 작품에서 보이는 시기적 특징으로 간주된다. 신체에 비해 얼굴이 작으며 전체가 사각형으로 구성된 비례감이라든지 수인 처리, 옷 주름의 표현 등은 16세기부터 유행했던 특징이 17세기까지 지속되었음을 알려준다.

조선 후기인 17세기 초기는 조선 후기의 시작 단계에 해당하는 시기의 불상으로 중요한 시점이나 현재 남아 있는 불상은 그렇게 많지 않다. 16세기 말부터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원은 석준과 원오이다. 석준과 원오는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의 중수에 함께 참여한 장인으로 이때부터 17세기 초까지 활동한 대표적인 장인으로 알려져 있다. 석준은 동학사 불상에 증명을 맡아 강원도부터 충청도까지 넓은 지역에서 활동한 장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석준의 작품은 남아 있지 않으나 증명을 맡고 있는 점에서 원오보다는 위 단계의 조각승일 가능성이 높다.

석준 다음에 활동한 각민과 원오 두 조각승은 다음 17세기 불상을 이끌어간 시작점에서 매우 중요한 작가로 판단된다. 더욱이 두 조각승 모두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서만 작품을 남긴 점도 흥미롭다. 즉, 같은 시기 인근 지역에서 나무를 재료로 사용하여 서로 다른 조형성을 가지고 불상 작업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은 그 예가 드문 17세기 초기인 1606년의 작품으로 조선 후기에 크게 유행한 도상 및 양식적 특징을 지닌 보편적인 특징만이 아니라 우수한 조형성 그리고 조각승 각민의 불상이 처음으로 조사된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겠다. 현재 각민은 1606년과 1614년에 제작된 작품만 알려져 있지만, 언급만 되고 있는 불교미술박물관 소장의 불상이 조사된다면 각민 불상 조각의 특징이 좀 더 구체적으로 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조각승 각민의 새로운 자료가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 권상로, 『韓國寺刹全書』 하. 이화문화사, 1994.
- 김광희, 「16세기 菩薩像 연구」. 『문물연구』 14, 2008.
- 김리나·정은우 외, 『한국불교미술사』. 미진사, 2011.
- 문명대, 「석준, 원오파의 성립과 논산 쌍계사 삼세불상(1605년) 및 복장의 연구」. 『강좌미술사』 36, 2011.
- 불교문화재연구소편, 『한국의 사찰문화재』 시리즈. 2003-2010.
- 손영문, 「조각승 인균과 불상조각의 연구」. 『강좌미술사』 26, 2006.
- 송은석, 「17세기 朝鮮王朝의 彫刻僧과 佛像」.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어준일, 「16世紀 朝鮮時代の 佛教彫刻 研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이용윤, 「삼세불의 형식과 개념 변화」. 『동악미술사학』 9, 2008.
- 이희정, 「朝鮮後期 慶尙道地域 彫刻僧과 佛像」.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정은우, 「경천사지10층석탑과 삼세불회고」. 『미술사연구』 19, 2005.
- _____, 「조선 후반기 조각의 대외교섭」. 『조선 후반기 미술의 대외교섭』, 예경, 2007.
- _____, 「용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특징과 원문 분석」. 『미술사연구』 22, 2008.
- 조선총독부, 『朝鮮古蹟圖譜』 권13. 1933.
- 최선일, 「조선 후기 조각승의 활동과 불상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_____, 『조선후기승장 인명사전 -불교조소-』. 양사재, 2007.
- _____, 「조선 후기 조각승과 불상 양식의 변천」. 『미술사학연구』 261, 2009a.
- _____, 「17세기 전반 조각승 원오의 활동과 불상 연구」. 『17세기 彫刻僧과 佛像 研究』, 한국연구원, 2009b.
- _____, 『17세기 彫刻僧과 佛像 研究』. 한국연구원, 2009c.
- 한국불교미술박물관편, 『衆生の 念願』. 200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에 위치한 동학사 대웅전에는 크기 110.5cm의 석가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약사불과 아미타불로 이루어진 삼세불상이 봉안되어 있다. 세 불상에서는 조성발원문, 개금중수기를 비롯해 여러 종류의 경전 및 복장물 등 76건이 발견되었는데, 발원문에 따르면 1605년 음력 10월에 대웅전의 석가불, 약사불, 아미타불과 극락전의 아미타불 등 4구를 조성하기 시작하여 1606년 음력 3월에 완성하였음이 밝혀졌으며, 원 봉안처는 계룡산(鷄龍山) 청림사(靑林寺)로 밝혀졌다. 그리고 1883년 불상의 개금이 동학사에서 이루어진 중수기도 발견되었다.

동학사 불상은 전체적인 비례라든지 세부적인 옷 주름, 수인, 얼굴 표정 등에서 17세기 전반경에 유행했던 불상의 특징을 보인다. 특히 허리가 긴 신체 비례라든지 수직과 수평으로 획일화된 옷 주름의 표현기법은 17세기 전반경의 작품에서 보이는 시기적 특징이다. 신체에 비해 얼굴이 작으며 전체가 사각형으로 구성된 비례감이라든지 수인 처리, 옷 주름의 표현 등은 16세기부터 유행했던 특징이 17세기까지 지속되었음을 알려준다.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인 1606년 제작된 동학사 삼세불상은 17세기 초에 제작된 불상 사례가 많지 않은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높으며, 삼세불상의 조성은 물론 원봉안처 및 충실한 중수기록이 발원문에 명기되어 있고 불상을 조성한 각민(覺敏), 행사(幸思) 등 상을 만든 조각승도 밝혀졌다. 조각승 각민은 1614년의 송광사 대웅전 삼존불상을 비롯하여 불상 제작에 대한 기록은 있지만 현존 작품은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이 유일하다.

불상과 더불어 복장물로 출토된 사경과 경전 역시 서지학적으로 조선 전기의 불서 간행 상황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 가운데 공덕주가 효령대군(孝寧大君)이라 적힌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은 『숙종실록(肅宗實錄)』의 세조의 동학사 행행기록에서 보듯 앞으로 공주 지역과 조선 전기 왕실의 후원 문제를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투고일 2012. 9. 20.

수정일 2012. 11. 6.

게재 확정일 2012. 11. 20.

주제어(keyword) 동학사(Donghaksa-temple), 조선 후기(Late Joseon), 삼세불상(Three Buddha Statues), 1606년, 조각승 각민(Sculptor monk, Gakmin)

